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기자의 역할인식과 역할지향의 영향력 연구 - 중앙일간지 편집기자를 중심으로

강현직
협성대학교 미디어광고영상학부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ournalist's Role-Cognition and Role-Orientation Upon Real Reportage attitude -Focus in editors of National Newspaper

Hyun Jig Kang

Dept. of Advertising, PR & Media, Hyups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앙일간지 편집기자의 역할인식을 사회안정 및 개혁·견제로, 역할지향을 취재원지향, 사시지향, 독자지향으로 구분하고 역할인식과 사실적 보도태도 사이에서 역할지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재원지향은 사회적 안정 역할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적 보도 역할 인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시지향은 사회적 안정 역할의 영향을 받을 뿐 사실적 보도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자지향성은 편집기자의 역할인식이 사실적 보도역할인식을 강화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재원의 기대에 영향을 받을 경우 사실적 보도태도는 감소하며, 독자의 기대에 영향을 받을 경우 사실적 보도태도는 증가하는바 편집권이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주제어 : 역할인식, 역할지향, 사실적 보도, 신문편집기자,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mediator effect related to role-orientation of traditional newspaper editors in terms of role-cognition and role-orientation in aspects of real reportage attitude by classifying the newspaper editor's role-cognition with social stability, reform, check, on the other hand, role-orientation with reporter's intention, intention of actual fact, and reader's inten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terms of reporter's intention the research showed the fact that reporter's intentions was influenced by the role cognition of social stability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made to reduce the attitude of real reportage. Compared with intention of actual fact and reader's intention, the intention of actual fact could be only influenced by the social stability, but it could not give any effectiveness to the attitude of real reportage, furthermore, the research showed the fact that reader's intention aroused some mediator effects which newspaper editor's role cognition gave rise to the attitude of real reportage much more strongly.

Key words : Role Cognition, Role Intention, Real Reportage, Newspaper Editor, impact of mediator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분석된 연구입니다.

Received 20 July 2014, Revised 22 August 2014

Accepted 20 Sept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Hyun Jig Kang(Dept. of Advertising, PR & Media, Hyupsung University)

Email: jigkh@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신문제작에서 편집은 좁은 의미로는 기사와 원고를 사용하여 기사를 꾸미는 일이고, 넓은 의미로는 기사계획을 세우고 만들어진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기 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문제작 전반을 총괄하는 의미를 가진다. 좁은 의미의 편집권은 보도기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면작성권이라 할 수 있는데 언론사의 사시와 같은 신문사 성격과 관련된 문제, 보도대상에 대한 장기적인 성격을 지닌 논조와 시각 등 신문편집의 장기방침, 매일 매일의 지면 작성을 위한 세부방침이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편집권에는 지면작성권에 기사 및 광고 등의 배치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하겠다[1][2].

편집의 관점에서 보면 신문은 기자의 기사작성-편집이라는 단계를 거쳐 독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신문 및 보도기사로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집에서 지면작성권(좁은 의미의 편집권: 이하 편집권)은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편집권은 물질적 생산과 정신적 생산이 공존하는 언론생산에서 정신적 부분을 관장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편집규약을 설치하여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발행인과 편집인 사이의 갈등을 규범화하고, 내외부적 간섭으로부터 편집권을 보호하지만[3], 미국은 편집방침이라는 개념에서 발행인의 권한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4].

우리나라의 편집권 문제는 임근수 교수의 “편집권의 옹호와 독립”이라는 1964년의 신문평론 논문에서 출발한다. 이후 편집권의 문제는 언론의 외부조직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1]. 편집권과 관련된 외부조직으로서 가장 먼저 보편적인 독자들 들 수 있으나 독립성과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서는 정부나 광고주 등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편집권의 독립성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가장 관련이 큰데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의 언론자유 관련 논의는 정부중심의 틀에서 논의가 되었다[5].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고 언론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정부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광고주의 영향력이 높아졌다[6].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편집권 문제는 내부적 요인이다. 조재현[7]은 편집의 주체를 발행인, 편집인

으로 구분하여 발행인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로서 정신적·이념적 노선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경향에 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발행인은 편집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내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박홍원(2011)은 언론이 외부와 내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신적인 편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만 공적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인의 영향력을 내적요인으로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8]. 그러나 박홍원(2011)의 견해는 발행인이 편집과 관련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편집권을 보호하되 편집인의 권한을 보장할 때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호순(2001)은 편집권이 내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주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9], 남시욱(2001)은 독일의 이른바 내부적 언론자유(Innere Pressfreiheit)를 사례로 들며 편집자의 권한 보장을 주장하기도 하였다[10].

발행인이 보도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준웅(201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이준웅(2010)은 편집을 통해 게재된 신문은 해당 언론의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기사내용을 선별적으로 강조하거나 윤색한 기사의 제목, 프레임화 된 내용, 정보원과 인용문을 선택적으로 드러내는 등 사안의 의미, 중요성, 관련성을 편향적으로 나타내는 편집방향을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동 연구는 34명의 부국장급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취회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언론인이 다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11]. 편집된 기사의 내용이 사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 저널리즘은 실제적 진실의 존재를 가정하고 이를 추구하지만 기업형 미디어에 속한 언론인은 ‘지식의 위계구조’ 아래서 작업하기 때문에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프레이저와 두타(Frase & Dutta)의 언급처럼 편집자에게 미치는 내외부적 영향요인은 사실적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2][13].

이재경(2003)은 과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부의 압력이 적어지면서 이익단체나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고 분석하는데 방법적으로는 사주 등을 통한 압력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압력이 가능한 이유로서 기본적으로 언론인 스스로의 철학적 뿌리가 부실하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14]. 이는 앞서 언

급한, 편집권과 관련한 외부의 압력인식이 언론의 역할을 언론인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 McQuail은 계몽적 역할, 파수견 역할, 정치적 안정자 역할, 사회적 권리와 책임 역할 등을 제시하였다[15]. 이 중 내외부적 영향과 관련된 역할은 파수견의 역할과 정치적 안정자의 두 가지 역할이라 하겠다. 이는 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권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론은 대국민 정책 수행에 있어서 막강한 변수이며 옹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16].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은 상이한 성격을 가지는데 만약 각 역할인식이 이익단체나 광고주 혹은 정부나 사주 등의 이익에 역할을 미친다면 이는 사실적 보도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보도기사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의 관심인 내부의 압력 가능성 즉, 신문사의 보수 또는 진보성향에 따라 기사의 프레임, 분량, 취재원의 자료선택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한다[17][18]. 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따라 일상의 이슈에 관한 보도에서도 시각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되는데[19] 이 같은 선행연구는 언론인의 역할인식이 언론사의 보도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도기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이에 언론인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인식이 다양한 내외부적 영향요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역할인식과 영향요인 인식은 사실적 보도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요한 연구문제라 할 것이다. 특히 독자에게 전달되는 보도기사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보도기사를 결정하는 편집인의 역할인식과 내외부 영향요인 인식 및 사실적 보도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집인의 내외적 영향요인,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인식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편집인의 내외적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역할인식 수준이 어떠한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편집기자가 가진 기본적 역할인식으로서 사회안정과 견제라는 두 가지 변수가 사실적 보도기사 제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내외적 영향요인이 사실적 보도태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편집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신문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신문사의 편집인으로서 중앙일간지의 편집부서에서 근무하는 편집기자로 한정하였다. 현대사회의 신문은 전통적인 신문과 온라인 신문의 두 가지 형태가 대표적이나 온라인 신문은 전통적인 신문에서 취재와 편집이 분리된 것과 달리, 취재 후 별도의 편집기자를 통해 전체 신문의 흐름과 맥락을 고려하는 편집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 신문은 편집기자가 있더라도 그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전통적인 종이신문은 취재된 기사를 취합하여 반드시 편집기자의 검토를 거쳐 배치되기 때문에 편집기자는 신문 전체 논조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편집기자는 전국언론인명록(2010)에 기재된 자로서, 편집업무에 종사하는 중앙일간지와 중앙경제지 편집기자 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설문에 참여한 282부 중 응답이 부실하고 누락된 응답이 있는 3명을 제외한 279명의 응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언론사별 분포를 보면 조선일보 28명(9.7%), 서울신문과 국민일보가 각각 21명(7.5%), 문화일보 20명(7.2%), 경향신문 19명(6.8%), 세계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각각 17명, (6.1%), 중앙일보 16명(5.7%), 한겨레신문과 아시아경제신문, 머니투데이 각각 15명(5.4%), 파인앤설뉴스 14명(5.0%),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이 각각 13명(4.6%), 헤럴드경제 11명(3.9%), 매일경제신문 10명(3.6%)으로 다양한 언론사 편집인의 의견이 연구에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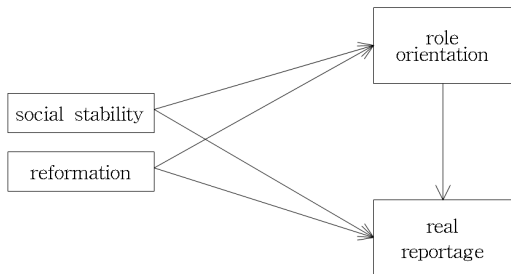
한편 이들의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134명, 40대 이상이 144명이었으며, 직급은 일반직급이 165명, 간부급이 113명이었다.

2.2 연구모형 및 측정항목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편집기자의 언론역할 인식 즉, 사회안정 역할과 개혁·견제 역할이 내외부적 영향 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외부적 영향 지향성은 사실적 보도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안정 역할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자의 역할 수행인식'으로 정의하며, 개

혁·견제 역할은 ‘정책을 견제하고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역할 수행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사실적 보도태도는 ‘사실 보도에 대한 역할 인식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외부적 지향성은 내외부적 기대에 대한 인식 정도로서 취재원 지향, 사시 지향, 독자지향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취재원 지향은 ‘취재원의 기대에 부합하는 역할’, 사시지향은 ‘소속 언론사의 기대에 부합하는 역할’, 독자지향은 ‘독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역할’로 정의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사실적 보도에 미치는 내외부적 기대 인식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자의 각 역할인식이 내외부적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각 변인에 대한 측정항목은 McQuail(1987), Weaver & Wilhoit(1986)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15][20]. 사회안정 역할의 하위항목은 ‘사회안정에 기여’, ‘정책 실효성을 위해 협조’, 개혁·견제 역할의 하위항목은 ‘사회개혁을 위한 역할 수행’, ‘정책 견제 및 사회적 약자보호’의 각 두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취재원 지향은 ‘취재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대’, ‘기사나 편집내용에 대한 취재원의 대응’, ‘취재원이 보도될 사건/사실에 대해 갖는 입장’, 사시지향은 ‘소속언론사 경영진의 공식적 요구와 기대’, ‘소속언론사가 표방하는 사시’, ‘보도될 사건/사실에 대한 소속언론사의 정치·사회적 태도’, ‘소속 부서에서 결정된 취재/편집방침’, 독자지향은 ‘보도될 사건/사실에 대한 독자의 태도’, ‘기사나 편집내용에 대한 독자의 평가’로 각각 측정하였다. 사실적 보도태도는 ‘보도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보도기사는 해설적이

며 구체적이어야 한다’의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모든 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사회안정 역할 인식과 사회개혁 역할 인식 및 각 내외부적 지향성에 대한 신뢰도는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Table 1>, <Table 2>에 나타난바와 같이 모든 측정항목의 신뢰도는 각 항목이 요인의 척도로서 문제가 없다. 사실적 보도역할인식의 .648로 나타났다.

<Table 1> Validity and reliability in role cognition

Variable	Factor	Factor1	Factor2	Alpha
social stability	1	.834	.171	.695
	2	.781	-.001	
re-formation	1	.395	.079	.641
	2	-.276	.230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in role oriented

Variable	Factor	Factor1	Factor2	Alpha
source oriented	1	.890	.119	-.023
	2	.874	.110	
	3	.859	.091	
corporation oriented	1	.251	.770	-.125
	2	.138	.759	
	3	-.003	.729	
	4	-.060	.679	
reader oriented	1	.129	.047	.919
	2	.068	.104	

2.3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수집된 각 요인에 대한 연령대별, 직급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후 내외부적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령과 직급에 따른 편집기자의 사회안정 역할인식, 사회개혁 역할 인식, 내외부적 지향성, 사실적 보도역할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실적 보도역할인식에 미치는 내외부적 지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SPSS 18.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연령대와 직급의 차이 인식 및 독립변인(사회안정 역할인식, 사회개혁 역할 인식)이 내외부적 지향성을 경유하여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문제

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령대,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연령대 및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에 앞서 전반적인 기자의 역할인식, 내외부적 지향성, 사실적 보도역할 인식에 대한 평균분석결과 <Table 3>에 나타난바와 같이 사실적보도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자의 역할인식으로서 개혁·견제 역할이 3.87로 높게 나타났다. 내외부적 지향성은 사시지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독자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혁·견제 역할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편집기자는 개혁·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정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eans of Role cognition and Oriented

Characters		M	S. D
role cognition	social stability	3.30	0.593
	reformation	3.87	0.525
role oriented	source oriented	2.69	0.729
	corporation oriented	3.64	0.498
	reader oriented	3.59	0.511

연령대와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혁·견제 역할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편집기자는 개혁·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정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 of Role cognition and Oriented by ages

Characters		<40	40≤	t
role cognition	social stability	3.27	3.34	-.905
	reformation	3.79	3.94	-2.342*
role orientation	source oriented	2.69	2.69	.057
	corporation oriented	3.58	3.69	-1.889
	reader oriented	3.58	3.59	-.154
real reportage		4.16	4.14	.377

*p<.05

<Table 5> difference of Role cognition and Oriented by positions

Characters		staff	officer	t
role cognition	social stability	3.27	3.35	-1.150
	reformation	3.82	3.94	-1.973*
role orientation	source oriented	2.70	2.68	.261
	corporation oriented	3.59	3.70	-1.808
	reader oriented	3.58	3.59	-.154
real reportage		4.16	4.14	.308

*p<.05

3.2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내외부적 지향성의 매개효과

먼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Table 6>과 같이 p-value가 0.5보다 크고, GFI와 AGFI가 0.9보다 크고, Normed χ^2 은 3보다 작으며, RMR이 0.05보다 작고 RMSEA가 0.8보다 낮아야 한다는 적합도 지수의 기준[21]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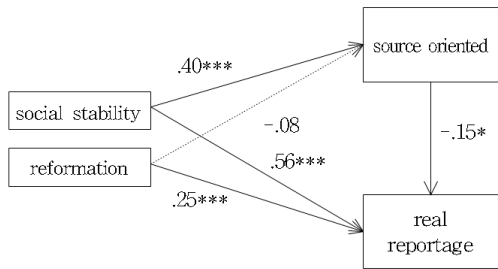
<Table 6> Fit indicates of research model

Normed χ^2	p	RMR	GFI	AGFI	RMSEA
2.640	.104	.011	.995	.953	.077

이에 연구모형에 따라 각 지향성에 미치는 기자의 역할인식과 기자의 역할인식 및 지향성이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Fig. 2]와 같이 사회안정 역할인식은 취재원 지향성에 영향력을 미치지만(St. Est.=.395, S,E=.068, C,R=7.189, p<.001) 개혁·견제 역할인식은 취재원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안정 역할인식(St. Est.=.556, S,E=.045, C,R=10.382, p<.001), 개혁·견제 역할인식(St. Est.=.246, S,E=.047, C,R=4.983,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이 나타났는데 취재원지향성은 사실적 보도태도에 부적영향(St. Est.=-.152, S,E=.036, C,R=-2.826, p=.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재원 지향성이 사실적 보도태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사회안정 역할인식과 개

혁·건제 역할인식의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취재원 지향성은 개혁·건제 역할인식이 사실적 보도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약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사회안정 역할인식이 사실적 보도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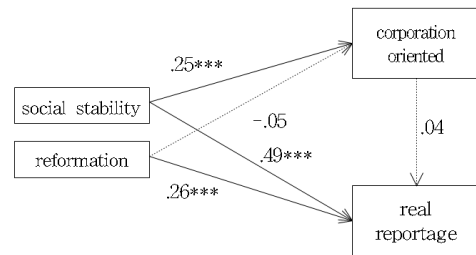
[Fig. 2] Estimated model relating role cognition and source-oriented to real reportage

[Table 7] Each effects of role cognition in source-oriented Model

	D. Effect	in-D Effect	Total Effect
social stability	.556	-.060	.415
reformation	.246	.012	.258

다음으로 사시지향성이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Fig. 3]와 같이 사회안정 역할인식은 사시 지향성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St. Est.=.245, S,E=.055, C,R=4.217, p<.001) 개혁·건제 역할인식은 사시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적 보도 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안정 역할인식(St. Est.=.487, S,E=.043, C,R=9.476, p<.001), 개혁·건제 역할인식(St. Est.=.256, S,E=.047, C,R=5.142,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이 나타났는데 사시 지향성은 사실적 보도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각 역할인식의 직간접 효과분석에서도 간접효과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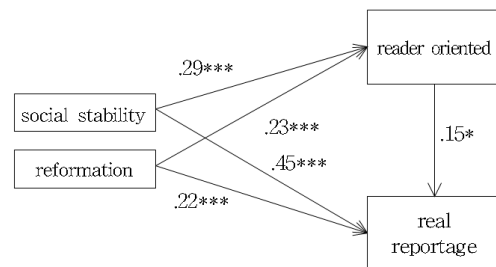
[Fig. 3] Estimated model relating role cognition and corporation-oriented to real reportage

[Table 8] Each effects of role cognition in corporation-oriented Model

	D. Effect	in-D Effect	Total Effect
social stability	.487	.009	.496
reformation	.256	.002	.258

독자 지향성이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Figure 4]와 같이 사회안정 역할인식은 독자 지향성에 영향력을 미치며(St. Est.=.293, S,E=.048, C,R=5.263, p<.001), 개혁·건제 역할인식 역시 독자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 Est.=.230, S,E=.054, C,R=4.121, p<.001)). 또한 사회안정 역할인식(St. Est.=.452, S,E=.043, C,R=8.874, p<.001), 개혁·건제 역할인식(St. Est.=.224, S,E=.048, C,R=4.424, p<.001) 모두 사실적 보도 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독자지향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St. Est.=.148, S,E=.052, C,R=2.791, p=.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각 역할인식의 직간접 효과분석에서도 독자지향성의 간접효과는 사실적 보도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Estimated model relating role cognition and reader-oriented to real reportage

<Table 9> Each effects of role cognition in reader-oriented Model

	D. Effect	in-D Effect	Total Effect
social stability	.452	.043	.496
reformation	.244	.034	.293

4. 논의

본 연구는 신문제작에 있어서 신문의 정체성과 시점을 반영하여 최종 제작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집기자를 대상으로 하여 편집기자가 가진 역할인식이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질적 연구에서만 논의된 편집권의 내외부 영향요인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편집기자가 가진 역할인식이 내외부 영향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내외부 영향요인이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가 설정한 편집기자의 역할인식과 사실적 보도태도에서 내외부 영향요인의 매개모형은 타당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에 편집기자의 역할인식은 내외부 영향요인과 사실적 보도 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내외부 영향요인은 역할인식과 사실적 보도 역할 인식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사용한 연구결과 첫째, 편집기자의 사회적 안정 역할 인식은 사실적 보도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외부 영향요인인 취재원 지향성, 사시 지향성, 독자지향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집기자의 개혁·견제 역할 인식은 독자지향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실적 보도 역할 인식에 미치는 사회적 안정 역할 인식과 개혁·견제 역할 인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둘째, 각 지향성 인식의 영향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독자지향성의 경우 전문성만과 같이 편집기자의 사회적 안정 역할 인식과 개혁·견제 역할 인식에 영향을 받으며, 사실적 보도 역할 인식에도 정적영향을 미치는데, 독자지향성은 사회적 안정 역할 인식과 개혁·견제 역할 인식이 사실적 보도 역할 인식을 강화하는 간접효과도 나타내었다.

사시 지향의 경우 편집기자의 사회적 안정 역할 인식의 영향을 받을 뿐 사실적 보도 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사시 지향은 사실적 보도 역할 인식과는 별개요인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취재원 지향은 사회적 안정 역할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적 보도 역할 인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안정 역할 인식을 감소시켜 사실적 보도 역할 인식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자지향성은 편집기자의 역할인식이 사실적 보도역할인식을 강화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시지향은 사회적 안정 역할의 영향을 받을 뿐 사실적 보도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재원 지향은 사회적 안정 역할과 사실적 보도역할인식 사이에서만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는데 편집기자의 사실적 보도역할인식을 감소시키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편집권이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즉, 편집권이 외부요인, 특히 취재원의 기대에 영향을 받을 경우 사실적 보도태도는 감소하며, 독자의 기대에 영향을 받을 경우 사실적 보도태도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내부요인 즉, 언론사의 사시는 사실적 보도역할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본 연구의 접근이 언론사의 사시가 사실적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사실적 보도역할인식이라는 기자의 인식수준만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실적 보도기사를 작성한다”와 같은 형태의 보도결과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영향의 경우도 실제로 내외부영향의 압력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외부영향에 대한 지향성을 측정했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의 인식을 추가적으로 연구한다면 실질적인 보도기사의 내용과 내외부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후속연구는 내외부 영향요인의 보도기사 영향력을 측정하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확장되어 다양한 내외부 영향요인 및 기자의 역할인식, 보도기사의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보도기사에 미치는 다양한 실증연구를 제안한다.

2014년 봄, 이른바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언론은 사건의 실체와 사건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다고 하여 질타를 받은바 있다. 물론 언론, 특히 신문은 매우 다양한 관점과 사실을 프레임화 하여 한정된 지면에 보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도기사는 내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사실에 대한 보도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정 취재원이나 언론사의 거시적 사회현상 이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언론 관련 연구자들은 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보도기사의 제작 방법 뿐만 아니라 독자의 만족을 저해하는 영향요인의 연구와 실증분석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reanalysis the data based on the author's doctoral thesis

REFERENCES

- [1] H. H. Ryu, Conceptual Issues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of Editorial,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6, pp.177-196, 1996.
- [2] S. Y. Woo. Freedom of Editorial. Korea Press Foundation. 2002.
- [3] I. S. Yu. Case Study on Ownership of Editorial. Newspaper and Broadcasting, 1998.9.
- [4] J. W. Park. A Study on the Freedom and limitation of journalism companies. Unpublished DMA thesis, Seoul University, 2007.
- [5] J. C. Yu et al, Government and Media, Pulbit, 1994.
- [6] J. G. Kim, A Study on News Report Pattern of the Korean Journalist, the Report of Expert Member in 2002 Committee of Korea Press, Kwan Hun Club, 1997.
- [7] J. H. Jo. An examination of the inner freedom of the press. *Public Law Journal*, Vol.8, No.3, pp.241-259. 2007.
- [8] H. W. Park, Editorial independence and freedom of the pres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11, No.1, pp.123-156. 2011.
- [9] H. S. Jang, The editorial rights and administration right should be separated. *Kwan Hun Journal*, Vol.82, pp.72-78. 2001.
- [10] S. W. Nam. Ideals of Editorial independence and their Limitations, *Kwan Hun Journal*, Vol.82, pp.140-149. 2001.
- [11] J. W. Lee, Tendentiousness of Korean Journalism and the Problem of 'the Distinction Between Facts and Opinions' .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54, No.2, pp.187-209. 2010.
- [12] Fraser, M. et al. Throwing Sheep in the Boardroom. 2008.
- [13] B. H. Lee. The Change of Media and Emerging Journalistic Norm and Value: An exploration Based on the Young-hee Rhee's Idea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Vol.59, pp.31-49. 2012.
- [14] J. K. Lee. Conditions for a Free Press in Korean Societ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47, No.2, 54-77. 2003.
- [15] McQuail, D, Mass Communication-An Introduction, 1987.
- [16] J. D. Kim, A Study on prospects on the change of newspaper-industry under Lee Myung-bak's government, *E-W Journal of Journalism*, Vol.12, pp.119-136, 2009.
- [17] C. S. Kim.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Coverages on Progressive Judgments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s.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Vol.21, pp.165-204, 2011.
- [18] H. S. Im et al., The Press' Utilization of the Government's Press Releas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55, No.2, pp.5-31, 2011
- [19] S. B. Lee, et al., A Frame Analysis on Korean Daily Newspapers' Coverage on Twitter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Communication and Formation of Public Opin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57, No.1, pp.28-53, 2013.

- [20] Weaver, D. H., & G. C. Whilhoit (1986). American Journalist. Bloom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21] H. S. Lee, et al., AMOS 18.0/19.0. Jip Hyun Jae. 2012

강 현 직(Kang, Hyun Jig)



- 1982년 2월 : 건국대학교(상학사)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언론정보 대학원(언론학 석사)
- 2012년 2월 : 건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언론학 박사)
- 1986년 6월 : 서울신문 기자
- 1992년 9월 : 문화일보 기자, 편집부장
- 2001년 10월 :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수석연구위원
- 2006년 4월 : 아시아경제신문 편집국장, 논설실장
- 2010년 8월 : 헌법재판소 소장비서관
- 2013년 3월 : 현재 협성대 미디어광고영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저널리즘, 매스커뮤니케이션, 언론법
- E-Mail : jigkh@hanmail.net